

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사도회장: 허진 세바스찬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966-8206)
사무실: 703-968-3010
팩스: 703-968-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미사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교종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받은 만큼 되돌려 드리는 해”

배드민턴부 신년회



지난 1월 17일 (토)에 본당 배드민턴회 신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시합 후 친교실에서 회식 및 게임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당 배드민턴회는 아이들을 포함한 약 20가정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2회 저녁 2시간 동안 심신을 단련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날씨에 관한 본당 (알링턴 교구) 지침

- 질병이나 악천후 (홍수, 허리케인, 폭설)로 인하여 미사 참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미사 참례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교회는 공소 예절, 기도, 성서 읽기, 선행을 바칠 것을 권고한다.
- 우리 본당은 악천후와 관련해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지침을 따르며, 이에 따라 건물 사용 및 행사, 활동이 취소된다. 하상관 체육관 사용도 이에 따른다. (www.fcps.edu 참조)
- 본당의 미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봉헌되며 악천후로 인해 미사 참례의 의무는 없지만 부득이 미사 참례를 할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 악천후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날은 굽이 높은 신발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은 절대로 신지 않는다.

복음묵상의 향기 '말씀'

우리의 삶이 하늘 나라에 좀 더 가까이

오늘 교회는 연중 제3주일을 지내면서, 하느님의 뜻이 우리 안에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빛 속에 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늘 나라에 좀 더 가까이'(마태 4,17 참조)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갈릴래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옥해서, 예로부터 이곳을 탐낸 이민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민족들의 갈릴래아'(이사 8,23; 마태 4,15)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다인들은 갈릴래아를 부정한 땅으로 취급했으며,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이 갈릴래아에 속했다는 사실에서 하느님의 역사와 섭리의 오묘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에 등장하는 파홈이라는 소작농은 내기를 통하여 큰 땅을 차지하게 됐지만, 결국 그는 죽음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의 욕심, 곧 그의 삶 안에 드리웠던 어둠과 암흑이 참 빛과 참 생명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의 말씀처럼, 인간은 "짊어진 명예와 어깨에 멘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이사 9,3 참조)가 주님 안에서만 부서지고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우리의 삶을 늘 살피자고 권고합니다. 사실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랑의 상징입니다. 또한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신실한 사랑의 은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어떤 처지에서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용기를 일으켜줍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하여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래아라는 것에서 그 의미가 새롭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중요시하던 예루살렘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많은 이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따돌려졌던 이른바 변방 갈릴래아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정신입니다. 아울러 갈릴래아는 베드로와 안드레아 형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꺼이 따르기로 응답한 곳입니다. 그려기에 두 사도에게 갈릴래아는 '영적 본향'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갈릴래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을 드리웠던 어둠을 뚫고 비로소 빛이 들어왔다면, 우리도 사도들이 갈릴래아를 떠올리며 느꼈던 뜨거운 마음을 공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안 계신다면 삶이 같지 않다는 것을 마음으로" 늘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주의 교리 상식]

복사 봉사자

우리는 미사를 집전하시는 신부님을 도와 미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단 위에서 중백의를 입고 봉사하는 이를 '보미사' 또는 '복사(alter server)'라고 합니다.

그 기원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복사의 역할은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3세기 말경 박해 때문에 감옥에 갇힌 신자들에게 열두 살의 소년 타르치시오(263-275)가 성체를 모셔다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로 인해 타르치시오 성인을 복사의 주보성인으로 공경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1969년에 발표된 「미사경본 총지침」에서 "신자들은 누구나 축제행사에서 특별한 직무를 위탁받으면 기꺼이 봉사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가르침으로써 복사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성인 여성들과 소녀들에게도 미사 중에 복사의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과 임무는 무엇보다 참된 전례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복사들은 귀한 직무를 맡은 선택된 사람임을 깨닫고 그 직무 수행에 알맞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맡은 봉사직을 기쁘게 수행할 때 자신과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1. 2차 헌금 안내

- 이번 주일에는 라틴 아메리카 교회 (Church in Latin America)를 위한 교구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2월 1일)에는 알링턴 교구 신문 (Diocesan Newspaper)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미리 정성껏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연중 제 3주일 모임 안내

- 1월 25일 (일)
 - 루가회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 요한회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 레지오 마리애 단원교육 (오전 11시 30분)
- 1월 27일 (화) : 원종권 핀따노 보좌 신부 부임
- 1월 31일 (토) : 바오로 총회 (저녁 5시)

3. 연중 제 4주일 모임 안내

- 2월 1일 (일)
 - 바오로회 가정모임 (오전 11시 30분)
 - 구역 봉사자 회의 (오전 11시 30분)
 - K of C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 베드로회 총회 (저녁 6시)
- 2월 2일 (월)
 - 주님 봉헌 축일 초 축복식 (오전 6시)
- 2월 5일 (목)
 - 첫 목요일 미사 및 성체강복 (저녁 7시 30분)
- 2월 6일 (금)
 - 봉성체 (오전 9시)
 - 십자가의 길 (저녁 6시 45분)
 - CYO Social Night (저녁 7시)
- 2월 7일 (토)
 - 바오로회 자매 모임 (오전 10시)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오전 10시 30분)

4. 바오로 총회 안내

- 일시 : 1월 31일 (토) 오후 5시
- 바오로회 (30,40대 초반) 총회가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바오로회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탁지은 안젤라 202-431-0627

5. 바오로회 가정 모임

- 일시 : 2월 1일 (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친교실 A-3,4
- 바오로회 1월 가정 모임에 초대합니다. 많이 참석 하셔서 서로 친교의 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6. 베드로회 총회 안내

- 일시 : 2월 1일 (일) 저녁 6시
- 장소 : 친교실
- 2026년 베드로회 총회를 할 예정이니 베드로회 형제, 자매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조한승 미카엘 202-235-6918

7. 주님 봉헌 축일 초 축복식

- 일시 : 2월 2일 (월) 오전 6시 미사 중
- 주님 봉헌 축일 미사 중 초 축복합니다.

8. 2월 봉성체 안내

- 일시 : 2월 6일 (금) 오전 9시부터
- 신청 : 정문기 윌리엄 703-598-3316

9. 2월 유아 세례 안내

- 일시 : 2월 14일 (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성지 가지 수거

- 지난해 성지주일에 가져가신 성지가지를 2월 15일까지 성지가지 함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11. 설 합동 위령 미사 봉헌

- 2월 17일(화)은 설날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은인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합동 위령 미사는 2월 15일 (일) 봉헌되는 모든 미사입니다.
- 미사 전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 기억하며 가족별로 절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사 전 미리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미리 미사를 봉헌하셔야 제대 앞에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들 이름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12.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 일시: 2월 18일 (수) 오전 11시 저녁 7시 30분
- 미사 중에 재의 의식이 있습니다.

13.십자가의 길 봉사자 안내

-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십자가의 길 주송과 복사하실 봉사자 신청를 받습니다. 각 단체, 개인으로 봉사하실 분들께서는 게시판에 있는 일정 표를 보시고 봉사하실 날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사순 시기 우리가 함께 할 일

- 주님 수난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며 우리 삶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은총의 사순 시기가 되도록 합시다.
- 사순 시기에는 주님의 수난에 함께 하기 위해 절 제된 삶을 살며 결심과 노력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도록 합시다.
- 단식과 금육제를 잘 지켜주시고 개인적으로 주님께 봉헌하기 위한 무엇이든 도전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 사순 시기 동안에는 매일 미사 전 묵주 기도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미사 전에 십자가의 길을 공동으로 바치고, 다른 요일에는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026년 1월 18일 (연중 제 2주일)
봉헌금 ----- \$7,586.00
교무금 ----- \$5,840.00
교무금 (신용카드) ----- \$4,650.00
감사 현금 ----- \$100.00
2차 현금 ----- \$3,240.00
온라인 봉헌 ----- \$1,925.00
합계 ----- \$23,341.00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오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2026년 1월 29일(목) 오후 5시 - 6시
2026년 1월 30일(금) 저녁 8시 - 9시
2026년 2월 1일(일) 오전 6시 - 7시

1. 주일미사강론
2. 가톨릭 뉴스
3. 성지순례: 이스라엘 1
4. 성경과 사람: 산상 설교

교종미사 예물봉헌

01/25 이번주	센터빌 1반
02/01 다음주	센터빌 2반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15. 헝가리-오스트리아-체코-폴란드 성지순례

- 동유럽 성지 순례는 1월 25일(일)까지 접수를 받기로 했으나 신청 인원이 너무 많아 일찍 마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성지 순례 잘 다녀오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6. 배하정 다니엘 신부님의 사제 수품 2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배하정 다니엘 주임 신부님의 사제 수품 26주년을 축하드리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17. 전례 교육 안내

- 일정 : 3월 6일(금), 13일(금), 20일(금) 저녁 미사후
- 대상 : 본당 전례 봉사자는 의무 참석
그 외 전례에 관심있으신 분들도 참석 가능
- 신청 : 전례 봉사자는 전례 부장님께
그 외 교우들은 사무실에서 신청 가능
- 신청 마감 : 2월 22일(일) 10시 미사 후까지

18. 성체 조배회 시작

- 본당 성체 조배회를 구성하여 합동 성체 조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월 1회, 셋째주 토요일에 성체 조배, 성체 강복, 미사를 하려고 합니다.
- 성체 조배 회원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체조배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자 하는 분들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시작일 : 3월 21일 (토)
- 신청 마감 : 3월 8일 (일) 10시 미사 후까지